

지방 > 부산

부산금융중심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상은 '이것'

등록 2024.12.11 11:25:07

[부산=뉴시스] 부산국제금융센터.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1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63층에서 '부산금융중심지 정책제안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시상식은 수상자(우수상 2팀, 장려상 5팀)에 대한 시상과 소감 발표, 아이디어 소개와 질의응답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31건의 제안서가 접수됐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우수상 2점, 장려상 5점 등 총 7점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플라스틱 자발적 거래를 위한 이니셔티브 제안(Asia-Pacific Plastic Credit Market Initiative)'과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초기 정착을 위한 핵심상품으로 지식재산권을 제안한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STO(토큰증권) 기반의 부산 디지털 금융 중심지 발전 계획'이 선정됐다.

진흥원은 수상자에게 진흥원 전문가 네트워크 행사 참여, 진흥원 주최 교육 신청 시 우대 등의 특전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 우수 사례를 확산·전파하기 위해 수상작을 정책제안집으로 발간하고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명호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은 "이번 첫 공모전을 통해 금융중심지로서 부산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보였다"며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발굴된 아이디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